

필리핀 선거 결과 및 전망

1. 필리핀 대선 결과

□ 아키노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

- 2010년 5월 10일 필리핀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Liberty Party: LP)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3세(Benigno Noynoy Aquino III) 상원의원이 중간 개표결과(5월 11일 오전 9시 현재 약 75% 개표) 40% 이상 득표하면서 사실상 필리핀의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¹⁾

- 그 다음으로 국민의 힘(Pwersa ng Masang Pilipino: PMP)당의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전 대통령이 2위, 국민당(Nacionalista Party: NP)의 마누엘 비야르(Manuel Villar) 상원의원이 3위, 집권 여당인 Lakas-Kampi-CMD의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전 국방 장관이 4위를 차지하였음.

□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대통령 탄생 예상

- 아키노 후보가 어머니인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에 이어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세계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모자(母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아키노 후보는 2009년 8월 1일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 열기에 힘입어 필리핀의 새 지도자로 급부상했으며, 동

1) 펄스 아시아(Pulse Asia) 등 현지 여론조사 기관이 5월초 선거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키노 의원이 4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20%, 비야르 의원이 19%, 테오도로 전 장관이 9%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년 9월 자유당 총재인 마누엘 로하스 2세(Manuel Roxas II)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룸.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필리핀이 부정부패, 빈곤, 폭력 등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아키노 상원의원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음.

2. 필리핀 선거 개요 및 경과

□ 3대 선거 동시 실시

- 이번에 필리핀에서는 3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하여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222명, 주지사 및 부지사 각 80명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포함하여 총 17,888명을 선출할 예정임.
- 아키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유력 정치가문 출신들도 이번 선거에 다수 출마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 로하스 자유당 총재는 1946년 초대 대통령에 오른 마누엘 로하스(Manuel A. Roxas)의 손자이자 제라르도 로하스(Gerardo Roxas) 전 상원의원의 아들로써 대표적인 정치 명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왔음.
 - 아버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Diosdado P. Macapagal)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부녀(父女)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 현 대통령은 고향인 팜팡가(Pampanga)주에서 하원의원으로 출마함으로써 차기 총리로서 재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아로요의 장남과 남편, 형제자매 등 4명도 하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Imelda Marcos)도 마르코스 가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북부 일로코스(Ilocos)주에서 하원의원에 출마했으며, 아들인 마르코스 2세와 장녀도 각각 상원의원과 일로코스 주지사에 출마했음.

□ 신규 투표시스템 도입

-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 Comelec)가 이번 선거부터 자동투표 시스템(Automated Voting System: AVS)과 자동검표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투표일 전에 투표자들의 혼란 초래 가능성과 자동검표기(Precinct Count Optical Scan: PCOS)의 오류 발생으로 인한 선거 연기론까지 대두되었으나,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음.
- 개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선자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후보들이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었음.
- 일부에서는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드러나는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혁명평의회나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음. 이러한 관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론 군부, 대법원 등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아로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나온 것임.

□ 일부 지역에서 폭력사태로 사상자 발생

- 필리핀은 역대 선거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빈발해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일을 앞두고 총격전과 이슬람 사원 폭탄공격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필리핀 당국은 공산반군이 일부 개표기를 부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투표 당일과 전날에는 필리핀에서 주류판매가 금지되었고, 선거 당일에는 총 76,340곳에 달하는 개표장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군대가 배치되었음.
- 필리핀에서는 대선 및 총선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아, 이번 선거 후에도 정국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아키노 후보의 정치적 배경

□ 민주화의 신화로 유명한 아키노 가문 출신

- 1960년 2월생인 아키노 후보는 1981년 필리핀의 아테네오(Ateneo)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거쳐 1998년 탈락(Tarlac)주에서 처음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3선에 성공한 뒤 2007년 상원의원에 선출되었음.
- 아키노 후보의 아버지는 필리핀 민주화의 영웅인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Benigno Ninoy Aquino) 전 상원의원이고, 어머니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으로 이번 대선 승리는 어머니의 후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해외로 추방되어, 3년간의 미국 망명을 접고 귀국길에 올랐으나 1983년 8월 마닐라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암살당했음.
 -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남편인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독재자 마르코스의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심증이 굳어지면서, 3년 뒤인 1986년 남편의 추모 열기에 힘입어 피플 파워 혁명을 이끌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가톨릭 등 종교계의 지지 선언

- 가톨릭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단체인 그리스도의 교회(Iglesia ni Kristo: INC)의 공식 지지를 얻는 등 교회의 영향력이 큰 필리핀에서 각 교파들이 잇따라 아키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음.

4. 필리핀 선거의 의미 및 전망

□ 필리핀의 가문정치 지속

- 이번 선거에서도 아키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다수의 유력 정치가문 출신들이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필리핀의 가문정치가 재연되고 있는데, 필리핀의 가문정치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개혁하기 어려우며 부패 정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필리핀의 가문정치는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시절 식민지 당국과 필리핀 토착 지배세력들이 결탁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필리핀 유력가문들이 현재까지도 막대한 토지와 기업들을 소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1987년 개헌을 통해 6년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하고 상원의원은 2회 연임, 하원의원은 3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력가문의 가족 구성원들이 선출직위를 서로 바꿔서 출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하원의원에 출마한 아로요 대통령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유력 정치가문 출신 아키노 후보의 한계

- 아키노 후보는 환수되지 않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으며, 필리핀의 고질적인 토지개혁 문제도 강조하여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몇몇 지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 그러나 아키노 후보 본인이 유력 정치가문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향후 아키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마닐라 북부 사탕수수 농장 (64.35km²)의 분배 문제가 이슈화될 전망이며, 토지개혁 같은 급진적인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음.

- 아키노 후보는 아로요 대통령이 집권한 9년간 제기된 부패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하는 등 부패척결과 경제정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아키노 후보의 집안도 아로요 대통령 집안과 같은 대지주 가문으로 아키노 후보가 집권하면 족벌정치가 더욱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됨.
-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가문인 코후앙코(Cojuangco) 가문이 산미구엘(San Miguel) 그룹의 소유주이며 대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키노 후보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키노 후보는 연설도 미숙하고 뚜렷한 정치적 경력도 없으며,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중요한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음.

□ 보다 긴밀한 한·필리핀 관계 기대

- 한편 필리핀은 6·25 전쟁 참전국으로 아키노 후보의 아버지인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6·25 전쟁기간 중 종군기자로 한국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어머니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도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있어 향후 한·필리핀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됨.

책임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